

“출판문화발전 신기원 이를 계기”

‘책의 해’ 제정 준비위원회 위원장 윤형두씨

지난달 26일 문화부는 내년 93년을 ‘책의 해’로 정하고, “정부는 출판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사업을 출판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해 선정은 둘러싸고 국악계와 출판계가 경합을 벌이자, 문화부는 문화예술계 인사 3백6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연극 영화의 해’(91년) ‘춤의 해’(92년)에 이어 출판계가 건의한 ‘책의 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 이같은 결정은 때마침 97년으로 예정된 출판관련업계의 시장개방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 출판계에서는 책의 해를 자구책 마련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기 위해 각종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책의 해’ 선정을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지난 7월 구성된 제정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요한 몫을 한 윤형두씨(출판협회장, 범우사 대표)를 만나 그간의 경위와 의의,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내년이 ‘책의 해’로 결정되었는데, 제안시기 등과 관련된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두 — 92년 6월 18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있었던 제14회 출판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한 이수정 문화부장관에게 93년을 책의 해로 선정해 줄 것을 정식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22일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지정 건의서를 문화부에 전달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제정준비위원회를 7월 1일 구성하고, 준비회의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홍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국악계가 제안한 ‘국악의 해’에 대한 논의가 이미 있었던 터라 그 실현여부에 대해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책의 해를 내년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두른 이유는?

윤형두 — 우리의 고유음악인 국악 진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책의 해 추진을 내년으로 못박은 것은, 시장개방의 물결이 당면과제라는 점 때문이었는데, 개방지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의 국제정치현실이란 게 원칙보다는 실리우선이라, 97년으로 예정된 시장개방이 사실 언제로 앞당겨질 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책의 해를 기화로 시장개방에 대비한 우리 출판계의 자구책 마련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또 국악계의 발전도 출판분야에서의 활성화가 이뤄지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책의 해 선행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오히려 일제시대에 한양가 춘향가 등 우리 국악의 악보 같은 게 수십종의 ‘딱지본’ 등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 출판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악에 대한 관심의 폭이 그때보다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말해 어떤 분야가 활기를 띠고 있느냐는 건 그 분야의 출판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 있는 가를 살피는 것으로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책의 해 선정을 서두른 것은 출판을 통해 문화예술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의도에서였습니다. 더욱이 요즘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사회는 침체의 정도를 넘어서서 자포자기에 가까운 상태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를 되살리는 데는 책의 역할이 당연히 크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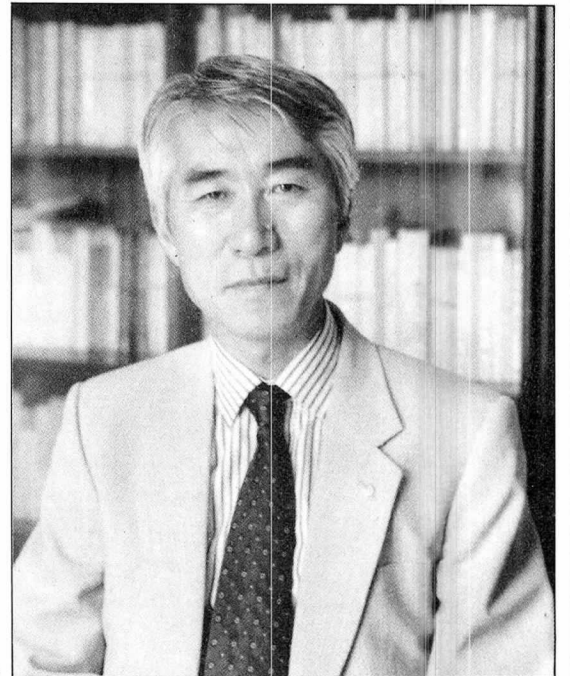
—특히 내년이 책의 해로 선정된 데는 연대기적 의미도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두 — 아마 선정과정에서도 시장개방문제와 함께 그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속활자란 점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내년은 어쨌든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로 알려진 ‘계미자’를 출판에 활용한 지 590년이 되는 해이고, 동시에 「한성순보」를 시작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자를 사용한 지 110년이 되는 해라, 그 의의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의 여유밖에 없는데, 뜻깊은 책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 출판계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윤형두 — 일단 출판관련업계와 연대한 기념사업위원회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와 일정이 밝혀지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계획은 ‘책의 현장’ 제정 선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독서 장려법’을 제정 추진할 계획인데 일례로 건축비의 일정율을 도서실 투자에 쓰도록 하고 불박이 책장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문화복권을 발행해 그 이익금을 도서관 건립에 활용한다든지, 도서우편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이 독서장려법의 실천사항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밖에 10개 도시를 주축으로한 각종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가령 전주의 경우, 대서습놀이 행사에 국악과 관련된 도서전을 개최하고, 명창 임방울씨의 레코드를 축음기를 통해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단발성 행사위주로 ‘책의 해’를 소모하기보다는 새로운 독서문화를 창출하는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더욱이 97년으로 예정된 시장개방을 이겨낼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윤형두위원장.

향 광주라면 화집이나 미술관계전문서적을 액책 위주로 전시하는 등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책과의 연계를 꾀하는 행사가 가능할 겁니다.

출판유통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출판계는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정가판매와 할인판매가 적절히 혼합돼 신간이 아닌 구간의 판매 역시 잘 이뤄지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재고도서를 구정가로 판매하는 ‘헌책 판매시즌’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쌓이는 재고도서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방안을 이번 책의 해를 계기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봄에는 아동물을, 가을에는 성인물을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그런 책들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에게 공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해를 하수도가 잘 정비된 출판계로 만들어, ‘출판계 체질개선의 해’로 했으면 합니다. 이밖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독서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독서의 생활화를 주지시키는 노력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책을 매개체로 하는 선물문화의 정착을 마련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도서상품권판매운동과 책의 가치를 알리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짜임새 있게 개최해야 합니다.

—다른 문화의 해와 변별점을 갖기 위한 불안과 함께, 책의 해 행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형두 — 먼저 책의 해는 흔한 협회 위주의 행사로 기념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바람일진 모르지만, 문인협회나 미술협회 등 유관된 모든 단체와 힘을 모아 출판이 갖는 광범위한 영역을 그대로 반영해야 여타 문화의 해와 다른 고유의 성격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활용도 유관단체에 지원하고, 출판사들이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93년 ‘책의 해’를 출판발전 10개년 계획의 신기원을 이룩할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단발성으로 끝맺는 행사위주보다는 연속적으로 출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란 측면에서 책의 해를 이해해야 합니다.

— 최태원 기자

번역

- 이태리어
- 영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일본어

희번사

TEL: 525-0842
FAX: 521-7429

서울·서초구 서초동 1589-8
현대 오피스텔 302